

12월 금융시장 브리프

2024. 12. 3.

[11월 국내 금융시장 동향]

- 11월중 국내 금융시장은 트럼프 공약 현실화 우려로 원화와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예상밖 연속 금리인하로 국고채 금리는 급락

[최근 회사채 시장 동향과 이슈 점검]

- **(최근 동향)** 회사채 시장은 최근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과거 신용 이벤트(예: 레고랜드 이슈)가 발생했던 당시와 비교할 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11월 둘째 주 27bp까지 확대되었던 기준금리 대비 회사채금리(3년물, AA-) 스프레드는 11.30일 기준 20bp까지 반락했으며, 이는 23.1월 이후 평균 스프레드 (59bp)의 절반 이하 수준
- **(22년 레고랜드 이슈와 비교한 최근 상황 평가)** 22년 레고랜드 관련 이벤트와 비교할 때 특정 기업의 회사채 이슈가 시장 전반의 신용경색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 ① **(회사채시장 이슈 주체)** 22년 일부 지방정부 보증채권에서 갑작스럽게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한 것과 다르게, 최근에는 특정 그룹 계열사 관련 루머로 신용 스프레드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어느 정도 인지해온 것으로 시장 전반의 위험회피로 파급되지 않음
 - ② **(통화정책 기조)** 22년 당시 금리인상 사이클이었던 점과 다르게, 최근에는 한은이 10월, 11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하여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회사채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
 - ③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레고랜드 이슈 당시에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미비했으나, 최근에는 금융위가 25년까지 시장안정조치를 지속 가동할 계획임에 따라 회사채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

[12월 금융시장 전망]

- 미 연준은 고용 부진에 따른 경기 연착륙 지원을 위해 12.17~18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4.75% → 4.50%, 상단) 인하
- 국고채 금리는 경기 하방위험 확대, 내년 1분기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로 하방압력이 지속(국고채 3년물: 11.29일 2.61% → 12월말F 2.50%)
-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관세 정책 우려, 내외 금리차 확대 등으로 1,390원 내외 유지(원달러: 11.29일 1,397원 → 12월말F 1,390원)
- 국내 증시는 기업실적 전망 하향 추세와 상승모멘텀 부재로 2,500대에서 박스권 등락(KOSPI: 11.29일 2,456 → 12월F 2,570)

작성자: 경영전략연구실 허문종 센터장(02-2173-0568), 서보익 센터장(02-2173-0532)
허지수 책임연구원(02-2173-0556), 김재훈 인턴(02-2173-0566)



목 차



I. 11월 금융시장 동향	1
[참고 1: 11월 미 연준 FOMC에 대한 평가]	2
[참고 2: 11월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 내용]	3
II. 최근 회사채 시장 동향과 이슈 점검	4
[참고 3: 22년말 레고랜드 이슈 요약]	6
III. 12월 금융시장 전망	6
[붙임 1] 주요국 거시경제 지표 추이	9
[붙임 2] 국내외 금리·환율·주가 추이	10

I. 11월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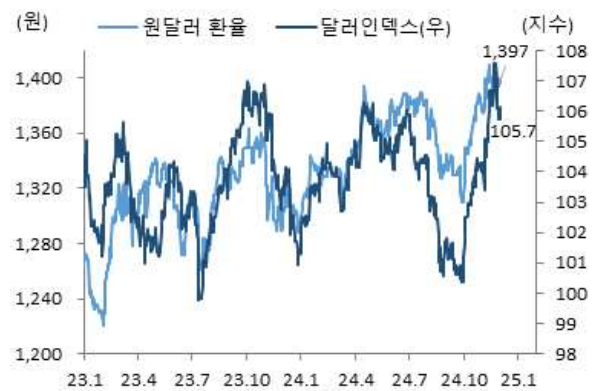
■ 11월중 국내 금융시장은 트럼프 공약 현실화 우려로 원화와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예상밖 연속 금리인하로 국고채 금리는 급락

- 월초반 2.9% 중반대에서 등락하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완화적 FOMC와 지정학 리스크, 금통위 연속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2.6%대로 큰 폭 하락(11.1일 2.94% → 11.29일 2.61%)
- 1,370원대 후반에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미 대선 'Red Sweep'으로 1,410원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12월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유효, 단기급등에 따른 반발매수 등으로 1,390원대에서 마감(11.1일 1,378원 → 11.29일 1,397원)
- KOSPI는 국내 기업실적 부진 전망, 트럼프 관세 정책 우려로 2,416pt(연중 종가 최저)까지 급락했으나, 이후 낙폭 과대 인식으로 2,450대로 반등(11.1일 2,542 → 11.29일 2,456)

미국 국채금리, 한국 국고채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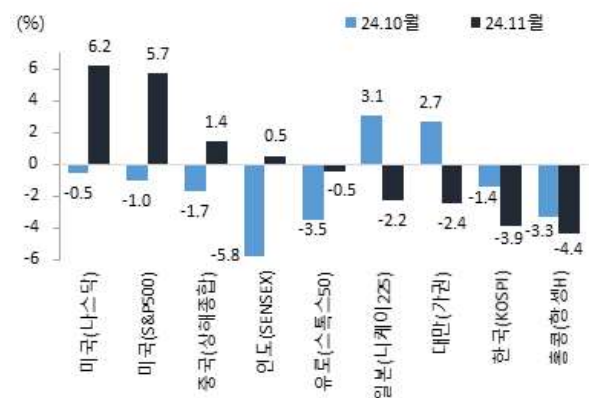
달러인덱스, 원달러 환율



S&P500, KOSPI 지수



24.10~11월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참고 1: 11.7일 미 연준 FOMC에 대한 평가¹⁾]

■ (연설 주요내용) 미 연준은 11월 FOMC(11.7일)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상단 5.00% → 4.75%)하고, 중립금리를 향한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recalibration)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

- (물가 상황)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9월 회의보다는 신중해진 모습
- (고용 상황)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향후 정책방향) 양대책무(물가 고용안정)를 같은 가중치로 고려할 것임을 암시했으며, 향후 적절한 금리인하 속도와 종착지(neutral rate)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 * 성명서에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roughly in balance)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
- 파월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준 정책 결정에 대한 트럼프 승리의 영향에 대해 일축하고, 26년 임기 만료까지 의장직을 수행할 의지를 표명

■ (금융시장 반응) 11.7일(현지시간) 시장에서는 금번 FOMC 결과와 파월의장의 발언이 완화적 (dovish)이었다고 평가하여 국채금리 하락, 달러화 약세, 주가 강세를 시현

- * 미 국채금리(10년물 4.33%, 전일대비 -10bp, 2년물 4.20%, -6bp)와 달러가치(DXY -0.55%)는 하락. 주가지수는 결과 발표 직후 강세(S&P500 +0.74%, 나스닥 +1.51%, 다우 -0.00%)로 마감
- FOMC 직후 발간된 6개 IB 보고서에서는 미 연준이 12월 FOMC에서 25bp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5개 IB)

[주요 IB 미 연준 금리 경로 전망 (11.7일 FOMC 직후 보고서 기준)]

기관	평가 또는 전망	24년말 금리(%)	25년말 금리(%)
Citi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11월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12월에 50bp 인하할 것으로 전망	4.25	-
BNP Paribas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지표들이 연준의 정책 경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며 12월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	4.50	3.25
노무라	관세 인상으로 인해 25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25년에는 3월에 한 차례 25bp 인하한 후 25년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측	4.50	4.25
BofA	미 대선 결과로 인한 정책 변경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미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대로 12월에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	4.50	-
JP Morgan	미 연준이 물가 경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 완화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표될 지표들이 연준의 12월 인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측	4.50	-
모건 스탠리	미 대선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고용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하며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	4.50	-

자료: 6개 IB 각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 11.7일 발표된 FOMC 성명문, 파월 의장 기자회견, IB 보고서를 중심으로 당시의 평가를 정리

[참고 2: 11.28일 한국은행 금통위 결정 내용]

■ (11월 통화정책 결정문의 주요 변화 내용)

-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판단에 있어 직전(10월) 금통위보다 25년 **성장(2.1%→1.9%)·물가(2.1%→1.9%)**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였음을 언급

	10월 금통위	11월 금통위
성장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	지난 8월 전망(금년 2.4%, 내년 2.1%)을 하회하는 금년 2.2%, 내년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물가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2.5%)를 소폭 하회할 것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 1.9%로 지난 전망치(2.5%, 2.1%)를 하회할 전망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아 등락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

- 통화정책 방향(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10월 결정문에 있던 ‘신중히’라는 표현을 제외하여 가까운 장래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

■ (총재 기자회견 주요발언)

- (금리인하 결단 요인) 직전 금통위 이후 수집된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인하를 단행

① 미 공화당이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Red Sweep)함에 따라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이 성장하방위험으로 작용

* 이창용 총재는 최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부와 대상국이 확대될 가능성과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를 통해 관세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②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물량기준)를 점검한 결과,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한은은 8월 전망 대비 25년 재화수출 증가율을 하향조정(2.9% → 1.5%)

- (향후 금리 방향) 향후 3개월내 기준금리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동결, 3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 금일 회의에서 장용성, 유상대 위원(부총재)은 동결 소수의견(2명)을 제시. 장용성 위원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동결 소수의견을 밝힘

- (환율 수준 및 변동성) 미 대선 직후 원화가 빠르게 절하되었으나,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정되었으며, 금리인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화조치를 가동할 계획

* 이창용 총재는 외환시장은 미국 정책 등 대외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하면서도, 12월 만기 예정인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왑 규모 확대를 통해 환율 변동성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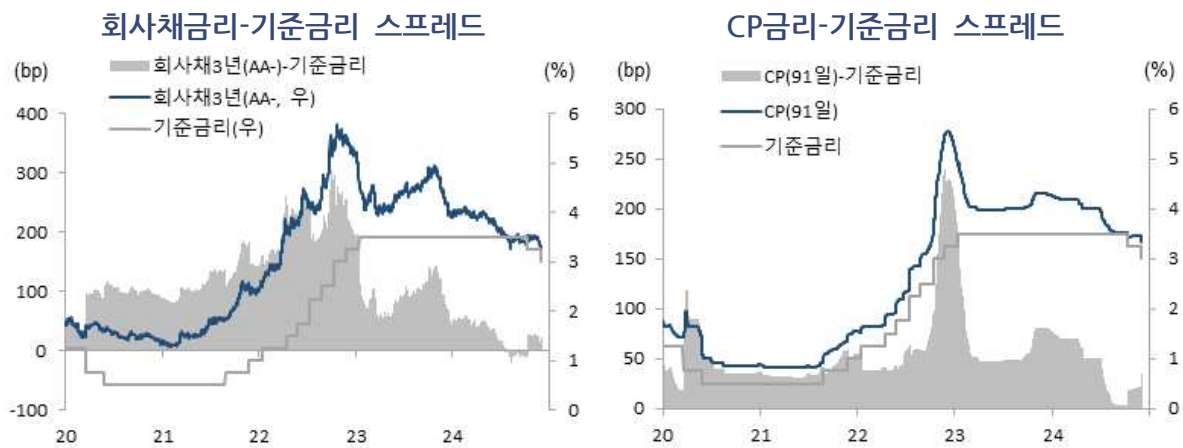
- (은행 여신 금리) 최근 대출금리 상승은 수개월 전 금리인하 기대가 선반영되어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진 부분이 정상화된 현상이며, 앞으로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가 낮아질 전망

- (가계부채)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존재하나,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등으로 향후 수개월간 가계부채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

II. 최근 회사채 시장 동향과 이슈 점검

■ [최근 동향] 회사채 시장은 최근 스프레드가 소폭 확대되었으나 과거 신용 이벤트(예: 레고랜드 이슈)가 발생했던 당시와 비교할 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11월 둘째 주 27bp까지 확대되었던 기준금리 대비 회사채금리(3년물, AA-) 스프레드는 11.30일 기준 20bp까지 반락했으며, 이는 23.1월 이후 평균 스프레드 (59bp)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과거 신용 이벤트 당시와 비교: 22년 레고랜드 이슈 vs. 최근 상황]

1) 회사채 시장 이슈 주체

- (레고) 부도위험이 거의 없다고 평가받아오던 지방정부 보증채권에서 갑작스럽게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하여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확산
- (최근) 특정 그룹 계열사 관련 루머로 신용 스프레드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어느 정도 인지해온 것으로 시장 전반의 위험회피로 파급되지 않음

2) 통화정책 기조

- (레고) 22년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한미 기준금리가 공격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 (최근) 한은이 10월, 11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하하여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회사채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

* 현재 CP 금리는 3.5%대로 유지되어, 레고랜드 이슈 당시 5.6%로 급등한 상황과 차이

3)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 (레고) 사태 발생 초기에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미비하였고, 이후 구축(상세한 내용은 참고 3 참조)
- (최근) 금융위가 25년까지 시장안정조치를 지속 가동할 계획임에 따라 회사채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
 - *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10조원, 증권사 PF-ABCP 매입 1.8조원, 신보 P-CBO 2.8조원, 한국증권금융 유동성 투입장치 3조원,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35조원 등

⇒ [종합평가] 22년 레고랜드 관련 이벤트와 비교할 때 특정 기업의 회사채 이슈가 시장 전반의 신용경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참고 3: 22년말 레고랜드 관련 이슈 요약]

■ 국채에 준하는 지방보증채의 신용도 하락이 공기업, 제2금융, 건설사 등 채권시장 전반의 신용경색으로 확산되어, 우량 기업들도 단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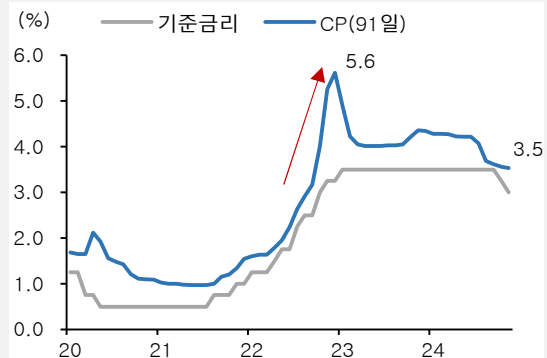
- 20년 레고랜드 건설자금 조달을 목적의 아이원제일채(SPC)를 설립하여 ABCP를 발행(강원도 지급보증, 2,050억원), 만기 시점에 미상환이 발생했으나 강원도는 상환 대신 기업회생을 강행
- 강원도의 채무 상황 불이행으로 증권사, 캐피탈사, 건설사 단기자금 시장이 급격히 경색됨(한전, 한국도로공사, 과천도시공사 등 채권발행 유찰, 부동산PF 차환 실패 등)
- 우석건설, 동원건설산업 부도처리,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건설사 부도 위기를 반영하여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1.7%p까지 확대(국고채3년 대비 회사채3년AA- 기준)되고 CP금리는 5.62%까지 급등

22년말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확대



자료: 한국은행

22년말 CP금리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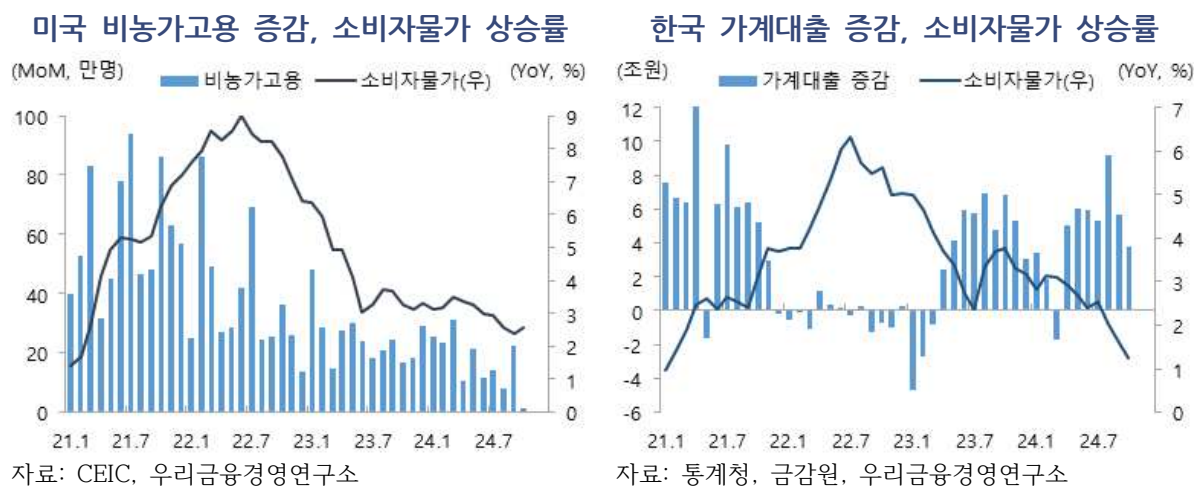
- 정부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CP 매입 16조원, 증권사 유동성 지원 3조원, HUG/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 10조원 등)을 마련하여 대응

III. 12월 금융시장 전망

- 12월은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390원 내외에서 등락하고 국고채 금리는 추가 금리인하 기대로, 국내 증시는 기업실적 부진 우려로 하방압력이 우세

[금리]

- 미 연준은 주요 인사들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관련 언급, 디스인플레이션 정체 양상 등에도, 고용 부진에 따른 선제적인 경기 연착륙 지원을 위해 12.17~18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4.75% → 4.50%, 상단) 인하할 것으로 예측
 -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24.7월 2.9 → 8월 2.6 → 9월 2.4 → 10월 2.6
 - * 비농가고용 증감(만명): 24.7월 14.4 → 8월 7.8 → 9월 22.3 → 10월 1.2
- 국고채 금리는 경기 하방위험 확대, 내년 1분기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로 하방압력이 지속
 -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24.7월 2.6 → 8월 2.0 → 9월 1.6 → 10월 1.3
 - * 가계부채 증감(조원): 24.7월 5.3 → 8월 9.2 → 9월 5.7 → 10월 3.8
 - * 국고채 3년물 금리 전망(기말, %): 24.10월 2.94 → 11월 2.61 → 12월F 2.50



[환율]

-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관세 정책 우려, 내외 금리차 확대 등으로 1,390원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다만,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왑 규모를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화조치를 가동할 계획

- * 유로존의 경기둔화 우려 확대(서비스업 PMI 기준선 50 하회), 격화되고 있는 러/우 전쟁 등을 반영하여 ECB의 12월 추가 금리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 빅컷 가능성도 제기함에 따라 유로화 약세압력이 지속(11.22일 달러유로 연중 최저인 1.04달러까지 하락)
- * 엔달러 환율은 이시바 내각의 대규모(39조엔) 경기부양책 승인(11.22일) 이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당분간 150엔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안달러 환율은 트럼프발 관세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7.25위안으로 연중 최고 수준에 근접할 전망
- * 원달러 환율 전망(기말, %): 24.10월 1,377 → 11월 1,397 → 12월F 1,390

원달러 환율, 한미 금리차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원달러, 위안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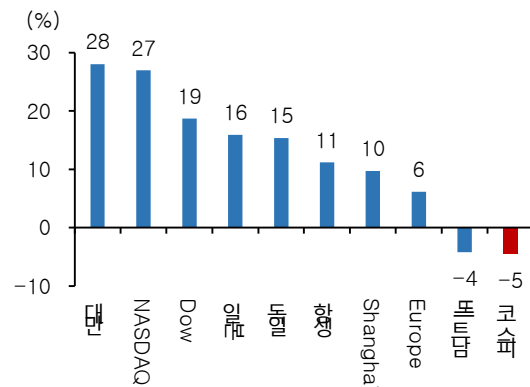
- 국내 증시는 역사적 PBR 하단 0.8배(팬데믹 시기를 제외)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중이나, 상장기업 실적 전망치의 감소 추세와 낙폭과대 이외의 뚜렷한 상승모멘텀 부재로 2,500대 박스권을 전망
- * KOSPI 지수 전망(기말, pt): 24.10월 2,556 → 11월 2,456 → 12월F 2,570

KOSPI 12m forward PBR



자료: Quantiwis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초 대비 글로벌 주요 증시 수익률(11월 4째주)



자료: Quantiwis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내외 금융시장지표 전망

항목		단위	2022	2023	24.9월	10월	11월	12월(F)
기준금리	미국	기말, %	4.50	5.50	5.00	5.00	4.75	4.50
	한국	기말, %	3.25	3.50	3.50	3.25	3.00	3.00
	유로존	기말, %	2.50	4.50	3.65	3.40	3.40	3.15
	일본 ¹⁾	기말, %	-0.10	-0.10	0.25	0.25	0.25	0.25
	중국 ²⁾	기말, %	4.30	4.20	3.85	3.60	3.60	3.60
국채금리	미국 10년	기말, %	3.87	3.88	3.78	4.28	4.17	4.15
	한국 3년	기말, %	3.72	3.15	2.81	2.94	2.61	2.50
	한국 10년	기말, %	3.73	3.18	2.99	3.10	2.75	2.65
	독일 10년	기말, %	2.57	2.02	2.12	2.39	2.09	2.00
	일본 10년	기말, %	0.42	0.61	0.86	0.95	1.05	1.05
환율	원/달러	기말, 원	1,265	1,288	1,317	1,377	1,397	1,390
	달러/유로	기말, 달러	1.071	1.104	1.114	1.088	1.058	1.050
	엔/달러	기말, 엔	131.1	141.0	143.6	152.0	149.8	151.0
	위안/달러	기말, 위안	6.90	7.10	7.02	7.12	7.25	7.27
주가	S&P500	기말	3,840	4,770	5,762	5,705	6,032	6,080
	KOSPI	기말	2,236	2,655	2,593	2,556	2,456	2,570
	KOSDAQ	기말	679	866	764	743	678	740

주: 1) 상단 기준, 2) 5년물 LR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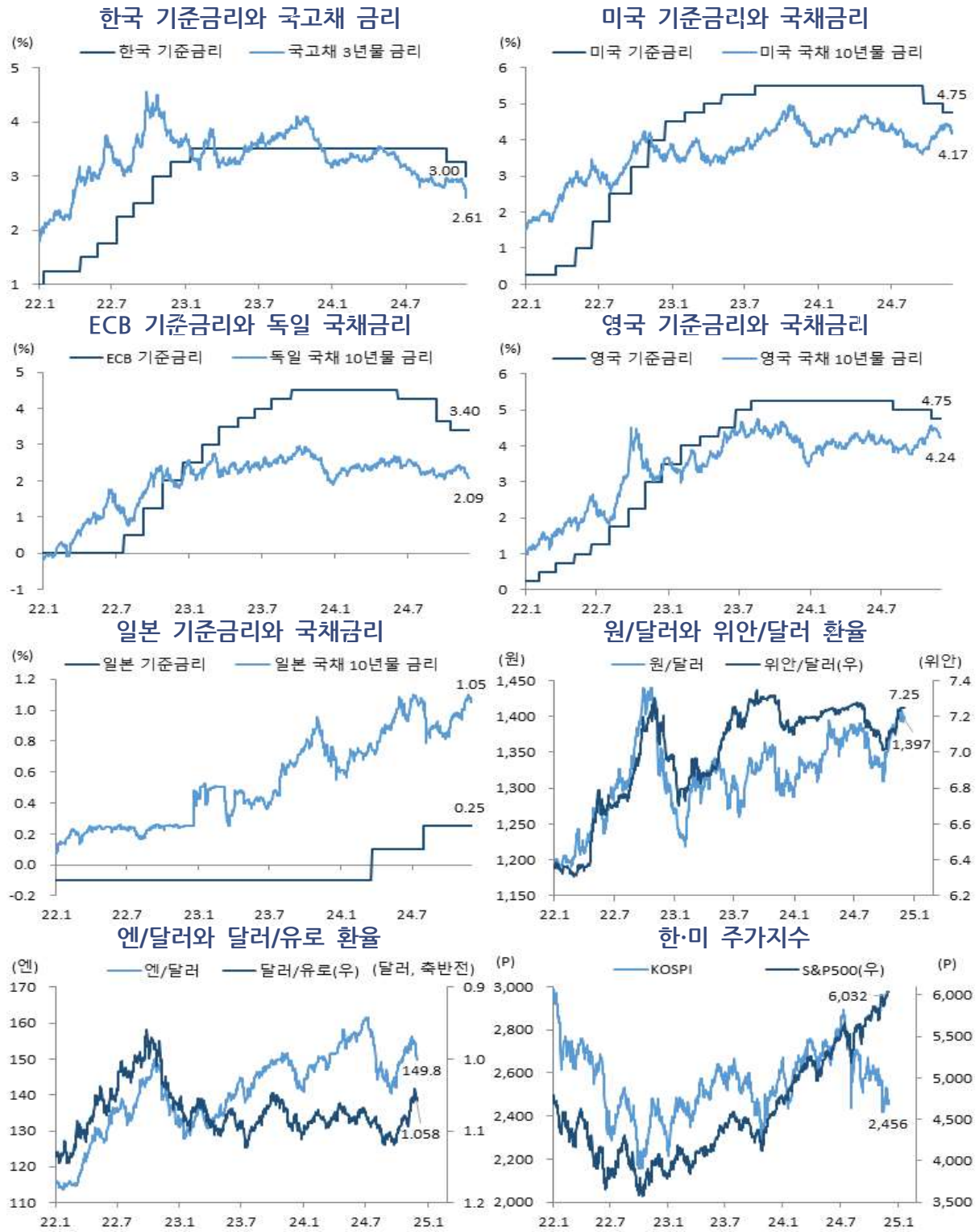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 1 | 주요국 거시경제 지표 추이

국가(지역)	항목	단위	24.1분기	2분기	3분기	24.7월	8월	9월	10월	11월
한국	GDP	전기비, %	1.3	-0.2	0.1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0.5	-0.8	-0.6	-2.0	1.5	-0.5	-0.4	-
	서비스업생산	전기비, %	0.7	-0.3	0.1	0.4	0.1	-0.8	0.3	-
	광공업생산	전기비, %	-0.3	1.2	-1.1	-4.0	4.2	-0.1	0.0	-
	제조업PMI	기준선=50	50.6	51.0	50.5	51.4	51.9	48.3	48.3	50.6
	수출	전년동기비, %	8.0	10.1	10.4	13.5	10.9	7.1	4.6	1.4
	취업자	전년동기비, 만명	29.4	14.5	14.6	17.1	12.3	14.4	8.3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3.0	2.7	2.1	2.6	2.0	1.6	1.3	-
	근원물가	전년동기비, %	2.6	2.1	2.0	2.1	1.9	1.8	1.7	-
	은행 가계대출	전기비, 조원	3.6	16.9	20.2	5.3	9.2	5.7	3.8	-
미국	GDP	전기비연율, %	1.6	3.0	2.8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0.1	0.5	1.3	1.2	-0.1	0.8	0.4	-
	개인소비지출	전기비, %	1.3	1.3	1.2	0.6	0.2	0.6	0.4	-
	산업생산	전기비, %	-0.4	0.6	-0.2	-0.7	0.5	-0.5	-0.3	-
	ISM제조업	기준선=50	49.1	48.8	47.1	46.8	47.2	47.2	46.5	-
	ISM서비스업	기준선=50	52.5	50.7	52.6	51.4	51.5	54.9	56.0	-
	비농가고용	전기비, 만명	80.2	44.2	44.5	14.4	7.8	22.3	1.2	-
	실업률	%	3.8	4.0	4.2	4.3	4.2	4.1	4.1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3.2	3.2	2.6	2.9	2.6	2.4	2.6	-
	근원물가	전년동기비, %	3.8	3.4	3.2	3.2	3.3	3.3	3.3	-
유로존	GDP	전기비, %	0.3	0.2	0.4	-	-	-	-	-
	(독일)	전기비, %	0.2	-0.3	0.1	-	-	-	-	-
	(프랑스)	전기비, %	0.2	0.2	0.4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0.2	0.3	0.9	0.4	1.1	0.5	-	-
	산업생산	전기비, %	-1.1	-0.4	-0.3	-0.3	1.5	-2.0	-	-
	수출	전년동기비, %	-2.7	1.7	2.4	9.3	-2.8	0.6	-	-
	제조업PMI	기준선=50	46.4	46.3	45.5	45.8	45.8	45.0	46.0	45.2
	실업률	%	6.5	6.4	6.3	6.4	6.3	6.3	-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2.6	2.5	2.2	2.6	2.2	1.7	2.0	2.3
	근원물가	전년동기비, %	3.1	2.8	2.8	2.8	2.8	2.6	2.7	2.7
영국	GDP	전기비, %	0.7	0.5	0.1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1.7	-0.2	1.4	0.5	0.9	0.1	-0.7	-
	산업생산	전기비, %	0.1	-0.3	-0.2	-0.7	0.4	-0.5	-	-
	수출	전년동기비, %	-7.9	-7.9	-5.2	-12.0	3.7	-7.1	-	-
	제조업PMI	기준선=50	48.3	50.4	52.0	52.1	52.5	51.5	49.9	48.6
	실업률	%	4.4	4.1	-	4.0	4.3	-	-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3.5	2.1	2.0	2.2	2.2	1.7	2.3	-
일본	GDP	전기비, %	-0.6	0.5	0.2	-	-	-	-	-
	소매판매	전기비, %	0.0	1.8	1.1	0.2	1.0	-2.2	0.1	-
	산업생산	전기비, %	-5.1	2.7	-0.4	3.1	-3.3	1.6	3.0	-
	수출	전년동기비, %	8.8	8.8	4.5	10.2	5.5	-1.7	3.1	-
	제조업PMI	기준선=50	47.8	50.0	49.5	49.1	49.8	49.7	49.2	49.0
	실업률	%	2.5	2.6	2.5	2.7	2.5	2.4	2.5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2.6	2.7	2.8	2.7	3.1	2.5	2.3	-
중국	GDP	전년동기비, %	5.3	5.0	4.8	-	-	-	-	-
	소매판매	전년동기비, %	4.7	2.6	2.7	2.7	2.1	3.2	4.8	-
	산업생산	전년동기비, %	5.8	5.9	5.0	5.1	4.5	5.4	5.3	-
	고정자산투자	연누적, 전년비, %	4.5	3.9	3.4	3.6	3.4	3.4	3.4	-
	수출	전년동기비, %	1.1	5.6	6.0	7.0	8.7	2.4	12.7	-
	제조업PMI	기준선=50	49.7	49.8	49.4	49.4	49.1	49.8	50.1	50.3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	0.3	0.5	0.5	0.6	0.4	0.3	-
글로벌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비, %	-2.7	-1.6	-1.8	-0.7	-1.8	-2.8	-2.9	-
	교역량	전년동기비, %	-2.5	-0.2	1.1	0.8	1.1	1.4	-	-
	제조업PMI	기준선=50	50.3	50.7	49.3	49.7	49.6	48.7	49.4	-

자료: LSE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 2 | 국내외 금리·환율·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